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농업 인구는 1970년 전체 인구의 44.7%이었으나 국가경제의 고도성장 및 산업구조의 재편과 더불어 1980년에는 28.4%, 1993년에는 12.3%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1년에는 5% 정도로 농업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인구 즉, 농촌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농업의 기계화는 농업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한국농업기계학회는 우

업자재검사소, 농협중앙회, 농업기계생산회사 등에 종사하는 농업기계관련 인사들에 의해 정회원 79명, 명예회원 12명으로 탄생되었다. 초대회장으로 피선된 한성금박사는 76년 10월 18일 한국농업기계학회를 문화공보부에 정기간행물로 등록하고 동년 11월 창간호를 발간하였으며, 1977년 5월 1일 농업기계인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제1회 농업기계 유관기관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학회 용역사업수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77년 12월 수원세무서에 학술단체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1978년 4월에 처음으로 학회 용역사업으로서 농업기계연감을 발간하였다. 농업기계연감은 우리나라 농업기계분야의 연구동향, 농업기계화를 위한 정책변화, 농업기계 생산, 가격, 공급, 수출입 등 중요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1978년 1월 6일 한국농업과학협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농업과학분야의 학술단체의 일원으로 활약하게 되었으며, 1979년 8월에는 학회정관에 공로상 및 학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1981년 6월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가입하고, 1986년에는 학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농업기계학술용어집을 발간하였으며, 1987년에는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한 학회업무의 전산화를 실시하였다.

한편, 농업기계학회에서는 농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일 뿐만 아니라 농업기계 수요자가 구매력이 약한 농민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농업기계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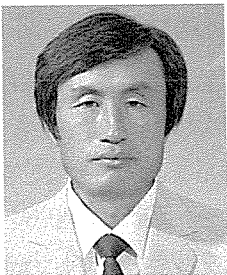
96년에 국제박람회 개최하는 한국농업기계학회

우리나라 농업의 기계화와 농업기계학의 발전을 위해 1976년 4월26일 창립된 한국농업기계학회는 정회원 6백80명과 38개의 단체·특별회원 규모로 왕성한 학술활동을 펴오고 있다.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맞는 한국농업기계학회는 96년10월에 국제농업기계박람회를 열고 제2회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리나라 농업의 기계화 및 농업기계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76년 창립, 초대회장 한성금박사

〈연혁〉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농업기계학회는 농업기계분야의 학문발전 및 농업기계인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1976년 4월 24일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당시 농촌진흥청 농공이용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시던 한성금박사를 중심으로 학계, 농수산부, 국립농



宋 鉉 甲
〈한국농업기계학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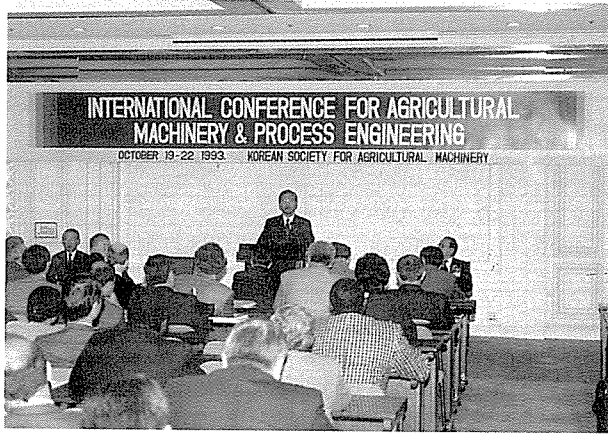
가 1979년 12월에 농업기계 화촉진법을 제정 공포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국제 학술활동으로는 학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1984년 7월 태평양지역 식량 비료 기술센터와 공동주최로 '소농을 위한 효율적 영농기계화'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1991년 7월에는 한·일공동 심포지엄, 1993년 10월에는 '농업기계 및 농산가공'에 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정회원 6백80명 뭉쳐 활발한 학술활동

〈회원과 조직〉 회원의 구성은 정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및 준회원으로 되어있다. 단체회원은 도서관, 연구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특별회원은 학회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 및 기업체, 준회원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정회원의 수는 6백80명(종신회원 1백13명 포함), 단체회원 20개 기관, 특별회원 18개 회사이다.

조직은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 총회부의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60명 이내), 총회 및 이사회의 부의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회장단, 전임이사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와 학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6개의 회무지원분과(출판분과, 재정분과, 국제협력분과, 교육 및 연구분과, 포상분과 및 준회원 활동분과)와 6개의 학



▲93년 '국제 농업기계 및 농산가공공학학술회의'에서 당시 농림수산부 허신행장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지원방안' 토론회 장면

술활동분과(농업동력분과, 농작업기계분과, 농산물 및 식품 가공기계분과, 농업환경 및 시설분과, 농업기계화분과, 신기술분과)가 있다.

임원은 고문 약간명,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사 60인 이내, 감사 2인으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학회 업무 수행을 위해 간사 2인을 둘 수 있다.

20년간 학회지 55권 발간 실적

〈주요 사업〉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학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학회지 발간(연 4회), 학술논문 발표회(연 1회),

심포지엄 또는 세미나(연 1회), 농업기계 유관기관 체육대회(연 1회)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 간담회, 특별강연, 기술강습회 등을 개최하며, 용역사업을 수행한다.

학회지는 창립 이후 총 55권이 발간되었으며, 세미나 및 심포지엄은 76년에 개최된 '영농기계화 촉진'에 관한 심포지엄을 비롯하여 '농업기계의 국산화와 개발방향', '농업생산시스템의 자동화와 첨단기술' 등 미래지향적 농업기계기술개발과 관련된 주제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왔다.

토론회 및 간담회는 79년 4월 '농업기계화를 위한 좌담회'를 비롯하여 'UR타결과 농업기계화'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주제를 대상으로 산·학·연·관의 대표를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학계에서 연구된 결과를 산업계에 이전할 목적으로 기술강습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도생산후 기술연찬회'(80년 8월), '농업기계 계측 및 마이크로 컴퓨터 활용기술' 등 모두 다섯차례 실시했다.

용역사업은 매년 수행하는 농업기계연감 발간을 비롯하여 농림수산부, 한국농기공업협동조합, 공업진흥청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총 6건의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특별강연은 정기총회를 기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초청인사로는

76년 10월 일본 경도대 川村 登교수를 비롯하여 총 7명의 저명인사가 초청된 바 있다.

또한, 1991년부터 산학협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계 5대업체(대 동공업(주), 국제종합기계(주), 동양 물산기업(주), LG전선(주)과 아세아 종합기계(주))에서 제공하는 매년 1억 원 정도의 산학협동연구비로 농업기계분야의 기초연구과제 수행, 기술서적 발간, 농업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산학협동연구비는 학회 회장단, 업체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산학협동연구사업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사업내용은 학회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회원의 학회활동 및 연구업적을 표창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연 1회 농업기계학회상을 시상하고 있다. 학회상에는 학회발전에 공헌을 한 자에게 공로상을, 농업기계의 학문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학술상을, 농업기계 기술개발에 업적을 이룩한 자에게 기술상을 시상하고 있다. 특히 기업체에서 학회기금을 회사하는 경우 그 이익금으로 회사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명칭의 기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국제적인 학회활동으로는 '소농을 위한 효율적 영농기계화'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비롯하여 1991년 7월에는 일본농업기계학회 북해도지부와 공동으로 '전작·시설원예의 기계화 현황 및 추진방향'에 관한 한·일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1992년 5월에는 중국농업기계학회와 농업기계분야의 기술정보와 인적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합의서를 교환한 바 있다.

1993년 10월에는 3박4일에 걸쳐

'농업기계 및 농산가공'에 관한 국제학술대회를 한국종합전시관에서 개최하였다. 본 국제학술대회는 학회 창립 이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세계 20여 개국에서 2백60여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석하여 1백9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한국농업기계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 매 4년마다 국제학술대회 또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에 제2회 국제학술대회

〈앞으로의 전망〉 농업기계화정책은 1991년 말까지만 해도 농촌노동력 대체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더불어 농산물의 생산비 절감, 부가가치 향상 등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합리화가 농업기계화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992년부터 향후 10년동안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약 42조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농업기계화와 시설현대화를 위해 약 10조원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산물 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5조5천억원을 할애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발전대책 강구 및 농정 개혁추진의 일환으로 94년부터 향후 10년동안 농림어업분야의 현장어로 기술개발 및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총 4천6백90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농업분야에서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급격한 농촌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집약형 영농기술 개발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기계학회가 구심점이 되어 농업기계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의 활성화는 물론 농업기계분야의 산·학·연·관이 상호 협력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농업의 기계화 및 자동화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처해 있다.

1996년에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농업기계학회는 국제학술교류의 증진 및 농업기계 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해 1996년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국제농업기계박람회를 기해 제2회 국제학술대회와 국제적으로 저명한 전문 기술인을 초청하여 기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1991년부터 출연해온 산학협동연구비를 활용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연구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1천2백여쪽에 달하는 농업기계핸드북을 2년에 걸쳐 발간할 계획이며, 세계화에 대처하기 위한 농업기계 산업기술 개발 방향, 농업기계 수출전략 등에 관한 심포지엄, 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산학협력 체제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㉟